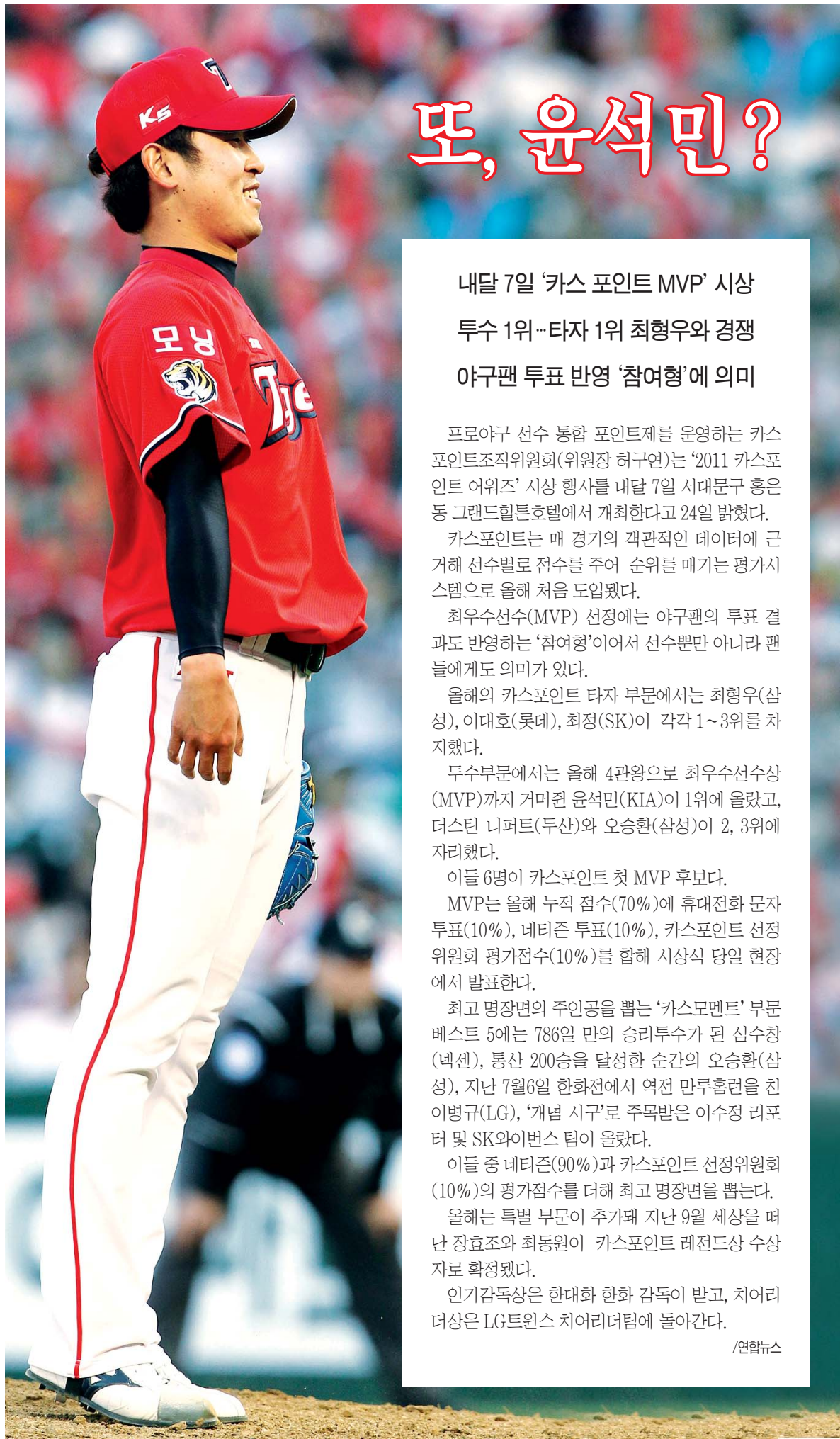




또, 윤석민?

내달 7일 '카스 포인트 MVP' 시상
 투수 1위...타자 1위 최형우와 경쟁
 야구팬 투표 반영 '참여형'에 의미

프로야구 선수 통합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카스 포인트조직위원회(위원장 허구연)는 '2011 카스포인트 어워즈' 시상 행사를 내달 7일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스포인트는 매 경기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선수별로 점수를 주어 순위를 매기는 평가시스템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최우수선수(MVP) 선정에는 야구팬의 투표 결과도 반영하는 '참여형'이어서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올해의 카스포인트 타자 부문에서는 최형우(삼성), 이대호(롯데), 최정(SK)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투수부문에서는 올해 4관왕으로 최우수선수상(MVP)까지 거머쥔 윤석민(KIA)이 1위에 올랐고, 더스틴 니퍼트(두산)와 오승환(삼성)이 2, 3위에 자리했다.

이들 6명이 카스포인트 첫 MVP 후보다.

MVP는 올해 누적 점수(70%)에 휴대전화 문자 투표(10%), 네티즌 투표(10%), 카스포인트 선정위원회 평가점수(10%)를 합해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최고 명장면의 주인공을 뽑는 '카스모멘트' 부문 베스트 5에는 786일 만의 승리투수가 된 심수창(넥센), 통산 200승을 달성한 순간의 오승환(삼성), 지난 7월6일 한화전에서 역전 만루홈런을 친 이병규(LG), '개념 시구'로 주목받은 이수정 리포터 및 SK와이번스 팀이 올랐다.

이들 중 네티즌(90%)과 카스포인트 선정위원회(10%)의 평가점수를 더해 최고 명장면을 뽑는다.

올해는 특별 부문이 추가돼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장효조와 최동원이 카스포인트 레전드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인기감독상은 한대화 한화 감독이 받고, 치어리더상은 LG트윈스 치어리더팀에 돌아간다.

/연합뉴스

장원삼 “호주는 내 손 안에”

‘아시아시리즈’ 오늘 삼성-퍼스 히트 대결

장원삼(삼성)과 대니얼 슈미트(퍼스 히트) 두 원수 투수가 25일 오후 1시(한국시간)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리는 2011 아시아시리즈에서 선발로 맞붙는다.

호주를 대표해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피언십인 아시아시리즈에 출전하는 퍼스 히트의 브루크 나이트 감독은 24일 연습이 끝난 뒤 “슈미트가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고 밝혔다.

그는 “슈미트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 운명의 열쇠를 쥔 선수다. 이길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슈미트를 선발로 내보낸다”고 덧붙였다.

키 190cm, 몸무게 100kg의 거구인 슈미트는 올해 23세로 정규리그에서 3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6승3패 평균자책점 2.97을 남긴 히트의 주축 선발 투수다. 호주리그와 미국프로야구 독립리

그를 오가며 뛰는 선수로 상대를 억박질러 삼진을 잡기보다 맞춰 잡는 투수로 알려졌다.

슈미트의 땅볼과 뜬공의 비율은 2.08이다.

나이트 감독은 “삼성과 소프트뱅크 호크스(일본), 통이 라이온스(대만) 등 아시아 팀들은 스몰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번트와 기동력에 대비한 연습을 했다”며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삼성의 선발로 나서는 장원삼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서

는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5이닝을 끝까지 잘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 마무리 훈련에서 대비를 잘했고 내일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시아시리즈에 처음으로 나서는데 우승할 기회가 왔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8승8패 평균자책점 4.15를 남긴 장원삼은 차우찬과 윤성환, 더그 매티스, 저스틴 저마노 등 삼성의 1~4선발이 빠지면서 아시아시리즈에서 1선발의 중책을 맡았다.

장원삼은 시즌 성적은 썩 좋지 못했으나 2006년 도하 아시아게임,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태극마크로 뛰었기에 국제 경기 경험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조코비치가 졌다

페레르, ATP 파이널 4강

다비드 페레르(6위·스페인)가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를 꺾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월드 투어 파이널스 단식 4강에 올랐다.

페레르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오투(02)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월드 투어 파이널스 대회 나흘째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조코비치를 2-0(6-3 6-1)으로 가볍게 따돌렸다.

2승을 거둔 페레르는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 진출이 확정됐다.

조코비치와의 역대 전적에서도 5승6패로 호각세를 이뤘던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조코비치는 1세트 게임스코어에서 3-2까지 앞서갔지만 이후 7게임을 내리 내주고 무너졌다. 실책도 페레르의 3배인 33개나 저질렀다.

1승1패가 된 조코비치는 안코 팀사 레비치(9위·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면 4강에 오를 수 있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는 올해 ATP 투어 마지막 대회로, 단식과 복식에서 세계 상위 랭커 8명(조)씩 출전, 조별리그를 거쳐 우승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씨름판에서 붙은 ‘다윗과 골리앗’



◀ 고목나무에 매미?

24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의 세계씨름친선교류전에 참가한 금강금(90kg 이하)의 안태민(현대실업)이 신장 230cm, 체중 170kg의 ‘골리앗’ 커티스 존슨(미국)의 공격을 받아 몸에 바짝 붙어 매달린 채 버티고 있다.



▼ 작은고추 맛 어때?

안태민이 커티스 존슨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첫 판을 따내고 있다. 안태민의 2-0 승. 안태민은 자신보다 53cm나 큰 존슨을 상대로 화려한 쇼맨십을 선보여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농구천재가 돌아온다”... 임의탈퇴 김승현 코트 복귀

KBL 공시 철회... 오리온스, 타구단 트레이드 합의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에서 임의탈퇴 선수로 분류됐던 가드 김승현(33·사진)이 코트로 돌아온다.

KBL은 24일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0년 3월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한 뒤 그해 7월 소속팀 오리온

스와 임금 소송을 벌이며 코트를 떠났던 김승현은 1년8개월 만에 코트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2006년 5년 간 연봉 10억5천만원의 이면계약을 맺었으나 김승현이 부상 등의 이유로 성적이 저조하자 이 계약의 이행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오리온스는 2009년 연봉 6억원, 2010년에는 3억원으로 김승현의 급



여를 삭감했고 이에 반발한 김승현이 지난해 7월 구단을 상대로 약속한 연봉 10억5천만원을 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서자 KBL은 같은 해 11월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

는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던 상황에서 최근 김승현이 구단에 “1심에서 이긴 12억원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구단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했고 구단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시즌 도중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오리온스가 이날 공개한 김승현과의 합의서에 따르면 이번 시즌 김승현의 연봉은 2억5천만원으로 결정됐고 12월8일까지 김승현을 다른 구단에 트레이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하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바더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검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격 끝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분권)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2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본인네비 매립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17만원 ⇒ 12만원

15만원 ⇒ 9만원

10만원 ⇒ 6만원

35만원 ⇒ 30만원

22만원 ⇒ 19만원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 7만원

▲ E75500 25만원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T 17만원